

“한 베이스 더”...호랑이 DNA 바꾼 ‘주루의 힘’

KIA, 주루 RAA 1위...데이터가 증명한 변화의 새바람

안타 때 추가 진루·번트·도루까지, 끊이지 않는 압박 플레이
득점 플레이 연계, 빠른 판단·과감한 스타트 “나가면 노린다”
타격은 중위권, 그럼에도 이긴다...주루가 메운 공격의 빈틈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확 바뀌었다. 반등의 표면에는 타격 회복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루의 변화가 있다.

단순히치고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다. 한 베이스를 더 가져가는 선택, 그 반복이 경기 양상을 바꾸고 있다. 주루는 도루뿐 아니라 안타 때 추가 진루와 태그업, 번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13일 기준, 야구 통계사이트 ‘스탯티즈’에 따르면 KIA는 올 시즌 주루 RAA (Runs Against Average) 2.55로 리그 1위다. 베이스 간 판단과 번트 작전이 결합된 결과다.

구간별로도 고르게 강하다.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등 주요 진루 구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타자가 땅볼이나 뜬볼로 아웃되는 상황에서 주자가 한 베이스를 더 가져가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안타가 나오면 1루 주자가 3루까지 파고드는 장면도 나온다. 빠

른 판단과 과감한 스타트, 주루 코치의 사인 등 득점을 노리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다.

작전 수행도 맞물린다.

KIA는 희생번트 9개로 리그 최다다. 주자를 한 베이스 보내고, 곧바로 득점권 상황을 만든다. 번트와 주루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도루는 9개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성공률 100%로 효율적인 운영이 돋보인다. 이 변화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더 선명하다.

KIA는 지난 시즌 주루 RAA 0.82(6위), RS%(Run Scored Percentage) 27.8%(8위), 추가진루율 20.4%(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달리는 야구가 부족했던 셈이다. 희생번트와 도루 역시 리그 하위권이었던. 그러나 올 시즌은 다르다. 시즌 초반 수치지만 지난해와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주루의 완성도가 올라갔고, 그 자체로 득점 생산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한화와의 3연전은 이를 잘 보여준다.

10일 경기에서 3회 데일의 희생번트가 추격의 발판이 됐고, 9회 박재현의 번트는 해기를 박았다.



KIA 박재현이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2루 도루를 성공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두 차례 작전은 득점으로 직결되며 6-5 역전승을 이끌었다. 11일에는 5회 박재현이 1타점 적시타를 친 뒤

중계 과정에서 나온 틈을 놓치지 않고 2루까지 진루했다. 8회엔 1-4로 뒤진 상황에서 안타 때 1루에서 3루까지 나아가며 무사 1,3루를 만들었

고, 이는 반격의 출발점이 됐다.

12일에는 데일(1회)의 도루가 선취 득점으로 이어졌고, 박재현(4회)도 과감한 도루로 압박을 더했다. 김규성의 두 차례 희생번트는 각각 4회 2득점, 6회 1득점으로 연결됐다. 번트 하나가 흐름을 바꿨고, KIA는 9-3으로 시리즈를 쓸어담았다.

숫자로 확인된 변화가 경기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타격 지표만 보면 KIA는 중위권이다. 팀 타율과 타점 모두 6위, 득점권 타율도 상위권과 격차가 있다. 방망이만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은 아니다.

그럼에도 승부를 끌어오는 이유는 뚜렷하다. 주루가 공격의 부족한 고리를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로 더 가고, 도루와 번트로 찬스를 만든다. 이 선택이 상대 마운드와 수비를 흔들다. 물론 마지막은 방망이가 책임진다. 하지만 그 상황을 만든 건 주루다. 한화전 스윙은 주루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준 시리즈였다.

결국 지금의 KIA 공격은 이렇게 정의된다.치고, 더간다.

남은 과제는 득점권 생산력이다. 주루가 만든 기회를 얼마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상승세의 지속 여부가 갈린다.

지금의 KIA는 더 이상 평범한 주루 팀이 아니다. 한 베이스를 더 가져가는 팀, 그 차이가 승부를 바꾸고 있다. /주철홍기자

“목표는 우승...가진 모든 것 쏟아부었다”

박의성, 19일 개막 광주오픈챌린저 단·복식 와일드카드 출전

5번째 도전...“컨디션 ‘굿’...홈팬 응원, 경기력 큰 힘”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대회’에 출전하는 테니스 국가대표 박의성(대구시청)이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의성은 오는 19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 단식 본선과 복식 모두 와일드카드 출전한다.

그는 14일 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광주오픈 우승이 최종 목표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박의성은 광주오픈 챌린저에 총 4차례 출전했으며, 지난해 단식 16강과 복식 8강에 오르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대표 데뷔전 승리와 데이비스컵 출전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오픈 챌린저 1회전에서는 2023년 이 대회 우승자 부 윤차오에게(중국)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의성은 최근 컨디션에 대해 “복식 경기력

은 많이 좋아졌고 단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현재 컨디션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컨디션이 저하될 경우에는 “운동량을 늘리거나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극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 있는 플레이로 서브와 백핸드를 뽑았으며, 멘탈 관리 비결에 대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집중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출전 선수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모든 경기가 기대된다”고 전하며 각오를 다졌다.

경기 장소인 진월국제테니스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스타디움이 잘 갖춰져 있어 경기에 집중하기 좋고 코트 시설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특히 홈팬들의 응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박의성은 “홈경기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며 “함성과 응원에서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챌린저 대회가 큰 대회이기 때문에 출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꼭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많은 응원을



2026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대회 단식과 복식에 출전하는 박의성. (광주테니스협회 제공)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대회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리며,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광주 글로벌유니온컬처센터 제1회 광주아시아안세팍타크로 대회 성료

11개팀 열전...‘아가’팀 우승

광주 글로벌유니온컬처센터(Global Union Culture Center 이하GUCC)가 주최한 제1회 광주아시아안세팍타크로 대회가 지난 12일 광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GUCC 다문화 축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다문화 가족이 세팍타크로로 하나되는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사진)

미얀마 외국인 근로자 11개팀과 응원단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경기에서 ‘아

카’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아가’팀 윌리엄(20)씨는 “모두가 함께하는 뜻깊은 대회를 마련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팀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즐겁게 경기하고 상까지 수상할 수 있어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성 글로벌유니온컬처센터 고문은 “레드우드 나무 한 그루가 지탱할 수 있는 건 작고 연약한 뿌리들이 연결돼 태풍과 비바람을 이기고 서 있는 것”이라며 “광주에 거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날 행사가 서로 연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생활·전문체육 교두보...지속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

광주시체육회, 스포츠클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체육회가 지역 청소년 건강 증진과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6 스포츠클럽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광주지역 7개 지정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 클럽은 서구스포츠클럽, 동강스포츠클럽 등 지역별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구성되며, 농구, 수영, 양궁, 태권도,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율

이 낮은 점을 고려해 초·중·고급반과 중급반으로 구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는 물론, 전문 선수로의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스포츠클럽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중심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스포츠환경 조성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정 스포츠클럽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스포츠클럽을 확대하는 등 스포츠 복지 환경을 조성하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사업 추진 이후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종목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희중기자

한국 U-20 여자축구, 두 번째 남북대결

오늘 아시안컵 4강 격돌

한국 축구가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여자 아시안컵 결승 길목에서 두 번째 남북대결을 펼친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5일 오후 6시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북한을 상대로 대회 4강전을 치른다.

이 연령대에서 한국은 북한에 크게 열세를 보인다. 이 대회에서만 8차례 만나 7번 지고 딱 한 차례 이겼다.

북한은 2024년 AFC 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뒤 그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린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8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 있다.

한국은 이미 이번 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북한에 0-5로 완패하며 경기력의 격차를 실감했다.

북한의 공격력은 무시무시하다. 조별리그에서 19득점, 무실점으로 3전 전승을 거뒀고, 후주와 8강전에서는 3-0으로 이겼다. 이번 대회 유일한 무실점 팀이다.

한국은 2승 1패, 4득점 6실점으로 조별리그 2위에 올라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8강전에서 태국과 연장전 끝에 2-1로 이겼다.

한국으로서는 물살틈없는 수비를 펼쳐 북한의 맹공을 최대한 막아야 승산이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 4강에 진출하면서 2026 FIFA U-20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는 ‘1차 목표’를 달성했다. /연합뉴스